

2024

사진 충북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2024년 10월 4일 - 13일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CHEONGJU PHOTOGRAPH LIBRARY

2024
사진충북

photo
chungbuk
festival

“충북 사진가로 산다는 것”

충북형의 사진 축제를 준비하며

사진이 발명되어 한국에 들어오고, 이곳 청주에 전파된 지도 100년이 넘었다. 그간 수많은 사진가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다양한 사진 문화, 사진인들이 생겨나며 바야흐로 사진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전국적인 분위기 속에도 유독 충북에만 사진 축제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간 지역을 위해 헌신한 선배 사진가들을 연구하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진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했다.

충북형 사진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초를 만들고 있다. 충북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사진가를 발굴하는 것이 큰 목적인데 지역을 조명하고 연구했던 작업을 중심으로 축제를 만들려 한다. 2022년 “봄날의 기억, 김운기 사진전”을 시작으로 2023년 “1990 청주의 사진가들”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 단체의 연구, “충북 사진사” 집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은 시각예술 분야 중 창작가가 제일 많고, 발표도 가장 많은 분야이다. 지금 사진은 예술을 넘어 우리 삶에 젖어 들기 위해 많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노력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민간 그룹 활동이어서 서로 간 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 축제를 통해 사진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충북은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예술의 고장이 된 것처럼 공공, 민간 분야의 예술 시설들이 많아졌다. 이제 프로그램이 생겨나야 하는 시점으로 자생적 문화예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타지역의 축제처럼 외부 작가나 기성 콘텐츠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는 충북형 사진 문화 구축이 필요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록관, 미술아카이브 등 시설이 생겨나며 시각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고, 언젠가 생길 청주 사진미술관을 위해서도 지역 사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충북 총감독

이재복

주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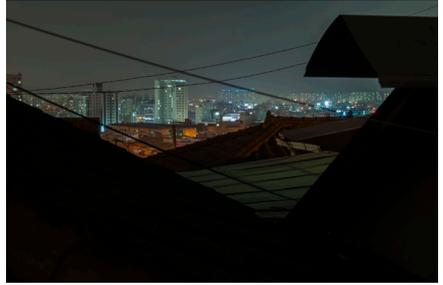
**충북을
기록하다**

Record
Chungbuk



심명희

무심에 스며들다, 청주



박노대

수암골 이충주, 청주



장종운

남한강, 충주



윤종섭

의림지와 청풍호반, 제천



서상숙

문정리406-1, 옥천

단체전

지금, 충북의 사진가들

하이라이트 청주

김유찬 김정선 김동엽 김인숙 김해연 소상호
손혜린 신명현 신희정 안동호 이경훈 이선호

동그라미사진연구회 옥천

이진영 이종은 송세현 이다경
정이품 진주희 황건하



특별전

사진가의 서재

지용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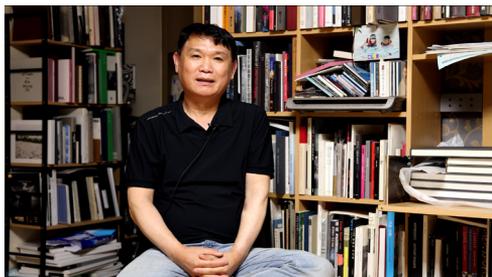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지용철 사진가의 서재

2024년 10월 6일(일) 오후 3시



심명희 무심에 스며들다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3시



박노대 수암골 이종주

2024년 10월 13일(일) 오후 3시



사진충북 주제전 작가 약력



심명희

1995년 사진에 입문 이후 사진의 기록성과 예술성 사이 경계에서 고민하며 작업해 왔다. 사진에서도 AI의 역할이 강화된 지금은 오히려 사진의 기록성에 매력을 더 느끼고 다큐멘터리와 내러티브가 혼합된 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사진은 결국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사회에 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무심에 스며들다'는 40년째 청주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나 자신을 무심천이라는 거울에 비추어보며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이다. 현재 무심천 아카이브 작업과 개인사를 담은 자화상 작업 중이다.

개인전

2023 갤러리빈산 개관기획, 텃 : 우리들의 블루스, 갤러리빈산, 약양
2022 더 먼저, 더 오래_ 차이와 반복에 대한 단상, 숲속갤러리, 청주
2020 Time and Timeless, 예일갤러리, 청주 & 갤러리인덱스, 서울
2015 A Possible World, 숲속갤러리, 청주 & 갤러리인덱스, 서울
2012 The Flower, Your Face, 예술의전당, 청주
2011 Carpe Diem, Turski Kulturni Centar, Sarajevo, B&H
2007 無心에 이르다, 예술의전당, 청주
2006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심갤러리, 청주 & 갤러리포토클래스, 대전

그룹전

2024 국제여성사진페스티벌 상상임신_테크니아,마루아트센터, 서울
2023 감각의 방향_우회의 지혜, 김영섭사진화랑, 서울
2023 IMAGE들의 思惟,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서울
2022 시간과 공간 위로 걷다, 신불당아트센터 M갤러리, 천안
2022 이성과 감성이 만든 공간- 소장품 Collection, 웨데미술관, 청주
2021 Lohas's Mythos- 사랑과 죽음에 관한 서사 16, 대청문화전시관, 대전
2021 Post Photography 전, 갤러리인덱스, 서울
2020 Personal Identity Matter + Exit 2020, 갤러리 MC, 뉴욕



박노대

구도심의 원주민과 입주한 자본가 간의 관계를 빛과 소리로 풀어낸 <이중주>, <변주>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수암골의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면, <도시, 공간의 사유>는 산책에서 발견되는 이미지에서 발현되는 심리적 현상이 개인의 상념이나 기억 그리고 사회와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에는 코로나 창궐의 영향으로 회화적 방식을 적극 받아들여 충돌과 만남, 불안과 같은 산다는 것에 대한 반추와도 같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전

2023 지평선을 잇다, 예일갤러리, 청주

2022 기억의 편지, 한국공예관, 청주

2022 산다, 사이아트(서울), 숲속갤러리(청주)

2021 중간자, AZIT갤러리(서울), 향유갤러리(전주 2022)

2020 수암골 <변주>, 가람신작, 청주

2018 도시 공간의 사유, 청주문화관, 청주

2016 수암골 <이중주>, 숲속갤러리(청주), 길가온갤러리(청주)

단체전

사라예보겨울축제(보스니아), 포토페스티벌(태국), 미래예술제(대전) 등 다수

사진충북 주제전 작가 약력



장종운

대학교에서 카메라를 접했고, '징검다리' 동아리에서 사진교류를 시작했다. 청주문화원에서 제1회 장종운 개인전을 개최했고, 고향 충주로 돌아와 남한강 4계절 강변 풍경을 담아 현대인들의 고독과 희망을 “江邊戀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ROTC로 복무하며 국내 최초 병사들의 내면적인 병영 생활을 기록하고 “젊은 날의 초상” 작업을 전시와 출판으로 발표했다. 이후 충주, 청주, 서울, 부산, 대전까지 초대되었다. 현재는 충주에서 영월에 이르는 남한강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 한반도의 한 축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전

- 2024 “젊은 날의 초상” 탄 갤러리, 대전
- 2023 “젊은 날의 초상” 구박갤러리, 부산
- 2023 “젊은 날의 초상” 인덱스갤러리, 서울
- 2023 “젊은 날의 초상” 청주 한국공예관
- 2023. “젊은 날의 초상” 충주 문화회관
- 2022 “江邊戀歌” 청주 한국공예관
- 2022 “江邊戀歌” 충주 관아골갤러리
- 1987 “장종운 개인전”, 청주문화원

수상

- 2024 13회 온빛다큐멘터리 후지필름상 우수상

출판

- 2023 “젊은 날의 초상”, 눈빛



서상숙

옥천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작업은 주로 대상의 존재와 시간을 마주 하며 계슈탈트 이론이 가미된 미니멀한 순수 사진이다.

최근 작업은 인류의 모든 문화 속에서 무의식적 이항대립의 구조가 있다는 시선으로 소멸과 생성을 생각하게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졸업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수료
2018~2024 사진의 섬 송도 참여작가

개인전

2024 메멘토모리展,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
2023 Objet, 더 빔 갤러리, 대전
2023 Objet,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
2022 시간의 풍경,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
2021 花, 환생시리즈 / 옥천愛 머물다, 비움갤러리, 서울



윤종섭

1975년부터 카메라와 인연이 된 후 현재까지 사진전 2회 개최했다. 2019년 제천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며 일곱 차례 사진 인문학을 출간했다. 1집 아내에게, 2집 봄이야, 꽃이야, 3집 제천이래요, 4집 빛의 두 얼굴, 명과 무명, 5집 의림지가 전해주는 무정설법, 6집 모든게 다 인연따라, 7집 꽃들도 그리움을 꽃피운다 등이 있다. 농경 문화의 최고유산 의림지와 내륙의 바다 청풍호반은 제천의 아이콘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제천의 대표적 명품명물을 카메라에 담아 간직하는건 당연한 의무기에 오랫동안 아침저녁으로 사진을 담아오고 있다.

개인전

2019 봄이야, 꽃이야, 제천시민회관
2014 의림지 작은섬, 그래도라 불러주면 어떨까, 제천시민회관

사진충북 특별전, 단체전 소개



지용철

어린시절...

혼자놀이 좋아하고

말주변이 없는 내게 카메라는 좋은 벗이었다.

그렇게 카메라는 언제나 내 옆자리에 있게 되었다.

학창시절까지는 주로 스트리트포토를 찍었고,

학교 졸업후에는 나무사진을 주로 찍었으며,

목련 전시후에는 꽃사진을 주로 찍게 되었다.

목련사진 전시후 10여회 정도 개인전과 초대전을 하였으며,

출간은 2016년 목련(정인출판), 2019년 목련(류가헌)을 하였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사진 단체는 사진가 개인 역량 증가와 사진 기반의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었다. 사진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작가들이 모여 지역을 조사하고 예술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찾고자 한다.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전 및 프로젝트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김유찬 회장

김유찬은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입니다. 주로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작업하며, 그의 사진전은 ‘화양연화’라는 테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양연화’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활기찬 순간을 뜻하는 한자로, 김유찬 작가는 이 주제를 통해 꽃이 피는 순간과 같은 인생의 정점을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김정선 총무

김정선은 독특한 시각과 감성으로 알려진 사진 및 시각 예술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기억과 꿈, 그리고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반영한 풍경과 감정을 표현하며, 작업실 공간을 통해 현실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김동엽

김동엽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찬찬히 풀어나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현재 청주에 거주하며 호기심과 관련한 부분에 영화적 상상력을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 “젊은 예술가의 초상” 작업을 통해 지역 아티스트의 인물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고, 다양한 실험적 문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김인숙은 충남 아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겪는 본능과 고통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모종동”, “만남로43” 프로젝트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은 강렬한 구도와 메시지를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해연

김해연은 대한민국의 사진가로, 충북 진천, 청주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원과 사진동아리 활동을 적극 참여해 온 예술가입니다. 그는 옥타프리즘 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진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코스모스”는 충북문화관에서 선보이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소상호

소상호는 사진에 열정이 많은 작가입니다. “홀로서기”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고, 다양한 사진대회에 참여하여 기량을 뽐내왔으며 특히 생활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 아카이브 페스티벌에 상당산성을 주제로 다채로운 기록물을 보여주기도 했고, 현재 칼디커피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손혜린

손혜린은 자연스러운 일상 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사진가입니다. 그녀의 작업은 조명을 이용한 스튜디오 기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아, 꽃 등 일상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이런 사진을 “자연 자아” 개인전을 통해 발표했고, 도시기억아카이브 활동으로 지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명현

신명현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로 자연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충북의 다양한 자연 명소를 촬영하여 그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빛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지역 사진전에서 꾸준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은 “미호강” 기록으로 개인전 및 출판물을 통해 지역 예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희정

신희정 사진가는 여행을 통해 풍경과 인물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에서 한국에 거주중인 다국적 사람들의 풍경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일상 속의 특별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안동호

안동호 사진가는 주로 충주 아카이빙 사진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이슈와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진은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관객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사회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훈

이경훈 사진가는 방송국 영상감독으로 활동하며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큐멘터리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당산성을 주제로 성벽과 문화재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담아 사회적 맥락을 반영합니다. 이경훈 작가의 사진은 색감과 구도가 뛰어나고, 진솔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집중하며,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선호

이선호 사진가는 주로 인물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표현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색감과 구성이 독특하고, 순간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보입니다. 이선호 작가의 작업은 종종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동그라미사진연구회



동그라미사진연구회는 옥천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말하고 비평하며 서로 존중하는 오픈 공간으로 그간 사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며 좋은 사진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지역의 사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호회입니다. 현재, 오랫동안 사진 활동을 한 작가를 비롯해서 사진에 처음 입문한 분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사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진영 회장

이진영 사진가는 옥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가로, “금빛천리” 개인전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지역 풍경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아름다움과 문화,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철학이 느껴지는 이미지들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역사를 기반으로 옥천의 다양한 특징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총무

이종은 사진가는 옥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 살아왔던 동네 풍경과 다큐멘터리 사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옥천 금구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주민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종은 작가는 색감과 구도를 통해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송세헌

충북 옥천과 대전을 기반으로 “대청호의 사계”, “향수”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시인과 외과 전문의로서 시의 모티브가 되는 주변의 상징물을 찍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읽고, 도시 골목에서 자본화된 기호를 보고, 상품화 된 현대의 도시 풍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인간화 된 자본주의에 안타까움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경

이다경 사진가는 옥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 주로 스트리트와 식물 사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정원에서 담을 수 있는 삶의 철학을 포착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다경 작가는 색감과 구도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연에서 얻은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이품

정이품 사진가는 옥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 청년 사진가답게 영상, 미디어, AI 등 최신 매체를 활용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전 “진작에 그렇게 살걸”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일상이나 꿈 등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이품 작가는 ‘문화 콘텐츠 = 재미’ 라는 전제하에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 청중과 소통하고 오락으로서의 사진을 추구합니다.



진주희

진주희 사진가는 옥천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사라져가는 마을,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옥천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담아내며, 감정적인 깊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합니다. 진주희 작가는 사진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소중한 순간들을 카메라로 담고 있습니다.



황건하

황건하 사진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 정회원으로 풍경 사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옥천 자연 경관과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세밀하게 담아내며,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건하 사진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청호 등 옥천 주변의 풍광을 기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4 photo chungbuk festival

사진충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유찬

총감독 이재복

전시감독 정인영 이진영

사무국장 김정선

홍보후원 손혜린

추진위원 김동엽 김인숙 김해연 소상호 신명현 신희정 안동호 이경훈 이선호
송세현 이다경 이종은 정이품 진주희 황건하

주최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CHEONGJU PHOTOGRAPH LIBRARY

주관 사진충북 추진위원회

운영 HIGH LIGHT

후원 일룸 청주점 용암 한라고속관광(주) (주)칼디 천년추정협동조합 낭성 아이큰숲어린이집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618620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 사진충북 페스티벌은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을 위해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